

ACHIEVE *ment*

AMWAY SUCCESS BUSINESS PARTNER

MAY 2017 / VOL.21



INTRO

Leader's View

AGER 2016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리포트 2016 01

Global Amway

글로벌 암웨이 본사와 지구촌 곳곳의 암웨이 소식 02

STORY ON

Amway Family

준비된 사업가들, 주재오&박경자 리더 가족 04

NCA Travel

2016 스페셜 리더십 세미나 두바이 취재기 10



COVER STORY

만물이 소생하고 회복하는 계절, 봄입니다. 지금도 암웨이 비즈니스 오너(ABO)들은 찬란하고 햇빛 가득한 이 계절, 풍요로운 꿈과 목표를 향해 전진 중입니다. 소비자인 동시에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암웨이의 풍요롭고 혁신적인 경제 철학이 이 봄을 맞이해 더욱 빛나기를. 그리고 암웨이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과 목표도 함께 찬란해지기를 바랍니다.

© Cover Illustration by Z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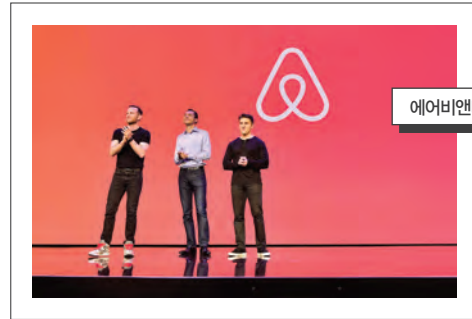


ACHIEVE MAY 2017 Vol. 21

등록 번호 강남, 바 00116 발행처 한국암웨이(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7층 발행인 김장환 편집 책임 박혜영 편집인 박진아 제작 TNS MEDIA 02-548-0722
디자인 디자인나무 02-3143-6720 포토그래퍼 김준, 민병훈, 유재철 카툰 홍윤표 사진 Alamy, Corbis, EuroCreon, Shutterstock, Getty Images 인쇄 미래엔

Global Young Leader

에어비앤비로 만나는 공유 경제 16



RECOGNITION

New Diamond Interview

Executive Diamond 22

Diamond

23

New Achievement

Emerald 28

Sapphire

29

Ruby

31

Platinum

32

Gold Producer

38

Silver Producer

40

OUTRO

Rules of Conduct

스폰서십 라인 규정 안내 44

AGER 2016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리포트 2016



암웨이 회장 _ 스티브 밴 앤델

암웨이 사장 _ 덕 디보스

암웨이는 그들만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었던 두 명의 사업가 리치 디보스(Rich DeVos)와 제이 밴 앤델(Jay Van Andel)이 창립했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삶,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그들은 생각보다 많은 세계인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암웨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도와 자신만의 사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 말입니다.

5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리치와 제이가 한때 꿈꿨던 삶을 여전히 갈망합니다. 그들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 갈망은 수년간 <AGER 리포트(암웨이 글로벌 기업가 정신 보고서)>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2016년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 <AGER 리포트>는 45개국에 살고 있는 5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인터뷰를 담고 있는데, 그중 77%가 사업가가 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40% 가까운 사람이 앞으로 5년 안에 자영업할 확률이 높다고 답했으며, 56%가 자영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객을 찾고 고객을 만드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 하고, 암웨이는 그들에게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 여러분이 더 많은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정보를 제공해 사업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여러분 같은 사업가 덕분에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암웨이와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꾸준한 헌신과 노력, 인내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Japan

일본암웨이, 국가자선상 수상

2011년 4월, 일본 동부의 대지진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이 가족과 집을 잃어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암웨이에서는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이웃들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희망의 집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550만 달러 이상이 모금되고 총 2,278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자선협회는 일본암웨이의 공로를 인정해 일본암웨이에 최고 권위의 기업 CSR 부문상인 국가자선상을 수여했습니다.



Russia

러시아의 '암웨이 자선 기금', 2017년 환경대상 수상



매년 4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환경상 시상식에서 러시아암웨이의 암웨이 자선 기금이 2017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암웨이 자선 기금의 자원봉사자들은 3년 전부터 해변, 강, 호수 등을 모두 포함한 물길 오물 정화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이번 시상식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 분야 최고의 사회사업 프로젝트'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South Korea



2017 웰니스 심포지엄 개최



4월 14일, 한국암웨이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웰니스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째인 웰니스 심포지엄은 국내 최대 보건산업 국제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17'의 부대 행사로, 한국암웨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 한국화장품미용학회가 후원합니다. 이 행사는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관리 강화 중심으로 변화하는 헬스 산업의 패러다임과 이에 맞춘 개인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 트렌드를 집중 진단했습니다.



한국암웨이,
김장환 신임
대표이사 선임

정년 퇴임하는 박세준 대표이사의 후임으로 김장환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10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나 한국암웨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재무, 인사, 총무, 구매, 영업, 마케팅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03년 직접판매공제조합 재직 당시에는 정부 유관부처와 공조 하에 다단계 산업의 인식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장환 신임대표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하는 리더로서 '신나는 암웨이'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예정입니다.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움직이는 창의 클래스' 완공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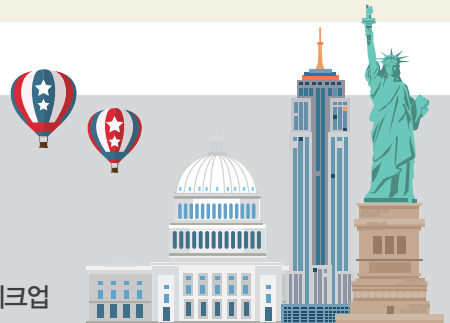


지난 2월 6일, 한국암웨이와 삼양초등학교는 강북구의 삼양초등학교에서 '움직이는 창의 클래스'의 완공식을 진행 했습니다. 한국암웨이는 서울시와 연세대학교, 하자센터 등과 민·관·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2012년부터 창의 인재 육성 사업인 '생각하는 청개구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청개구리 프로그램의 일환인 움직이는 창의 클래스를 통해 교내 유휴 공간이 초등학교생의 창의력 발현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SA

테리사 팔머의
아티스트리 메이크업



지난 2월 26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제89회 아카데미영화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아티스트리의 글로벌 모델인 테리사 팔머는 세계적 톱스타들 가운데에서도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하늘하늘한 연청색 드레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녀의 메이크업은 기초 화장부터 피부 표현, 색조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티스트리의 제품입니다.

amway family

Amway Family

준비된 사업가들,

주재오&박경자 리더





한국암웨이의 첫 수석 다이아몬드였던 주재오·박경자 리더는 매년 두 단계씩 편입했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1995년에는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1996년에는 크라운 엠베서더를 달성한 이들의 기록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이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던 비결은 준비된 상태로 암웨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주재오·박경자 리더는 한국암웨이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암웨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암웨이의 대한민국 상륙을 기다렸다.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는 고성장 중이었다. 산업 단지는 풀가동되었고, 거주 형태도 아파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새로운 에너지를 요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원이던 주재오 박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최전선에서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1980년대부터 그는 선진 원자력연구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로 나가야 했다. 프랑스 원자력연구소를 방문할 때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던 아내 박경자 리더도 동행했다. 세계를 눈에 담은 그녀에게 학교는 너무 좁고 갑갑한 공간이었던 것일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지만, 프랑스에서 돌아온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학교를 그만뒀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사실 이들 부부에게 사업 아이템이 너무나 많았다. 1980년대의 대한민국은 닫힌 세계였다. 주재오·박경자 리더처럼 세계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들은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가로수>나 <벼룩시장>처럼 1990년대를 휩쓸던 생활 정보지나 노래방으로 변화해서 안착한 가라오케 시스템 등의 가능성을 그들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알아챘다. 박경자 리더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체형 관리 숍이었다. 다양한 뷰티 숍이 존재하는

현재와 달리 30년 전 대한민국에서 체형 관리 숍은 완전히 새로운, 그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변화에 한 발자국 앞장서서 기다리는 사업이었다. 결과는 대박이었다. 주재오·박경자 리더의 삶은 1980년대에 이미 풍요로웠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 없었다. 유복한 집안에서 어려움 없이 자란 주재오 리더는 세상에 공헌하는 삶을 꿈꿨고, 사업 실패로 가정의 부침을 경험해본 박경자 리더는 지속 가능한 안정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때 암웨이가 다가왔다. 1989년 주재오 박사는 일본 원자력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다가사키에 체류했다. 그곳에서 연말을 맞이한 그는 외국인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주재오 박사는 일본에서 영문학 교수로 근무 중인 그레그(Greg)를 만났다. 이런저런 주제로 이어지던 대화는 가족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신개념 뷰티 숍을 운영 중이던 박경자 리더는 남편에게 일본 뷰티업계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오라고 부탁했다. 어떤 신기술이 유행하는지 확인하고 화장품도 몇 종류 사 오라는 것인데, 주재오 박사는 자신이 뷰티 분야의 문외한이라 큰일이란 이야기를 농담처럼 던졌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레그 교수가 화장품 전문가를 자임하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차에서 암웨이 카탈로그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들 부부에게 암웨이는 낯설었다. 주재오 박사는 프랑스와 미국의 다른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 도쿄의 화장품 매장을

돌아봤는데, 일본어에 능숙한 그레그 교수가 통역을 하며 도와줬다. 고맙고 미안했던 그는 예의상 그레그가 소개한 암웨이 화장품 몇 종을 구매했다. 암웨이 화장품은 덤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박경자 리더의 뷰티숍 고객 반응은 뜻밖이었다. 암웨이 화장품이 가장 인기를 끌었고, 주문이 쇄도했다. 주재오·박경자 리더는 암웨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선택: 순간인가, 미래인가?

원자력연구소는 우라늄이나 방사성 물질을 취급한다. 이러한 위험 물질은 사람이 손댈 수 없기에 원자력연구소는 예전부터 많은 기계 설비를 자동화해왔다. 1984년, 주재오 박사는 공장 자동화에 격렬히 저항하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의 시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임금이 아니라 고용 자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시간이 흐를수록 컴퓨터와 로봇이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게 확실해 보였다. 자신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연구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아내의 사업도 크게 성공해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다. 이 간극은 세상에 꿈과 희망을 심고 싶다는 주재오 박사의 간절한 바람이 되었다. 박경자 리더는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불안했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에서 자랐지만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 탓에 집안이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으로 확인했다. 오늘 아무리 큰돈을 벌어도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암웨이의 인세 수입은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모래의 그리고 그다음 날의, 먼 미래의 안정으로 보상된다. 암웨이는 이들이 늘 바라던, 사람을 돕는 일인 동시에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사업이었다. 그레그에게 암웨이 관련 자료를 받고, 미국 본사의 영문 문서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암웨이에 대한 확신은 더욱 커져갔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암웨이가 들어와 있지

▣ 주용석·이지현
다이아몬드(위),
주은혜·이택규
플래티늄(아래).
네트워크가 아니라
가치를 계승할 때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amway family

않았지만 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1991년 5월 한국암웨이가 오픈하는 날, 바로 암웨이 리더가 되었다. 이들은 준비된 리더였다.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겪어야 하는 노력은 피할 수 없었다.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 매주 3번 이상은 대전과 서울을 오갔고,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매일 새벽에야 집에 들어오곤 했다. 주재오 리더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아들딸인 주용석·주은혜 리더에게 미안한 기억이 가득하다”고 회상한다.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남매는 집 옆쇠를 목걸이처럼 달고 통학했다. 주재오·박경자 리더는 남매가 잠에서 깨기 전에 집을 나섰다. 그들이 잠든 새벽에야 돌아왔다. 주용석·주은혜 리더는 부모님께 전할 이야기가 있으면 내용을 종이에 적어 집안 곳곳에 붙여뒀다. 현관문, 냉장고에 붙이거나 심지어 자신들의 배 위에 종이를 올려두고 자기도 했다. 주말에도 주재오·박경자 리더는 기사식당에서 허겁지겁 자녀에게 밥을 먹인 후 사업을 위해 어딘가로 떠났다.

“어려서 하도 다닌 탓인지 주은혜 리더는 지금도 기사식당이라면 질색을 합니다.”

주은혜 리더의 남편인 이택규 리더가 웃으며 이야기한다. 이제 추억거리가 되었지만 그때는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 엄마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경자 리더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직장 생활을 할 때부터 ‘순간을 위해 미래를 희생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 순간을 희생할 것인가’를 놓고 늘 고민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젠가 자녀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그걸 해주는 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가족이 그립고 애써도 참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심지어 당장 훨씬 큰





수입을 창출하는 뷰티숍도 접었다. 미래를 위해 지금 한 순간을 희생하는 게 옳겠다는 과감한 선택이었다. 주재오 박사 역시 트리플 다이아몬드핀에 도전하면서 갖은 만류를 뿌리치고 연구소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준비된 암웨이 가족의 탄생

선택의 결과는 자녀들의 삶과 인생관에 영향을 끼친다. 부모님이 바쁘게 뛰던 과거와 현재를 회상하며 주용석 리더가 입을 열었다. “10세 무렵에는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께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려고 부모님께서 자기희생을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리포트로 아버지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온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10세에 이미 암웨이를 알았고, 집에서 늘 홈미팅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싶었기에 유학 중인 미국에서 스폰서도 없이 암웨이 미팅을 쫓아다니며 사업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전공인 투자·재무 관련 업무를 할지 암웨이에 집중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암웨이를 선택해서 제대로 해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부모님의 자유를 보면서 저도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지현 리더는 주용석 리더가 미국에서 후원한 첫 파트너다. 의사 시험을 준비하던 그녀는 암웨이에서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업을 결심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시부모님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을까? 이지현 리더는 그렇지 않라며 고개를 젓는다. “며느리گی 이전에 사업 파트너로 대해주세요. 가족 모임에서도

1 암웨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집간 딸이 건설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다. 암웨이 덕에 가족의 정은 더욱 끈끈해진다.

amway family

사업과 관련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니까 훨씬 유익하고 즐거워요. 게다가 시부모님께는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존경스러운 분들이 수평적으로 대해주시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들은 4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한국 암웨이의 역사만큼 시부모님께서도 암웨이 사업을 해오셨어요. 이제 저희가 20년만 더하면 저희 가족은 50년 역사를 지닌 암웨이 가족이 돼요. 딸인 소연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자라서 스스로 판단하겠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지만 가치는 계승된다. 주용석·이지현 리더는 암웨이를 선택했고, 선택의 결과는 자녀들의 삶과 인생관에 다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은혜 리더는 암웨이가 모태 신앙이나 마찬가지로 말한다.

암웨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녀를 둘러싼 환경이 되었지만,

주은혜 리더가 처음부터 암웨이 사업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1 이서준 군(7세)과 주소연 양(5세)은 아직 암웨이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 하지만 이미 암웨이의 보상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회사에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학 중인 오빠를 따라 미국의 평원에 참석한 후 마음을 바꿨다. 암웨이는 전 세계 수많은 리더가 자신의 꿈을 목표로 함께 호흡하는, 때로는 3대가 함께 가치를 이어가는 거대한 무대였다. 미국에서 가족 사업의 비전을 발견한 주은혜 리더는 합류를 결심했다. 20대 초반의 일이다. 유학길에 오르고, 결혼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가족 사업의 꿈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었다. 이택규 리더는 주은혜 리더를 통해 암웨이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장인 장모의 직업일 뿐이었지만, 장인 장모가 워낙 입지전적인 분이다 보니 호기심이 생겼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장인이 연구원 출신이라는 점도 호기심을 자극했다. 연구원답게 차근차근 암웨이를 분석하며 플랜 B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관심이 커져갔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고 있다. 직장에서 30년을 보내도 퇴직 후 또 다른 30년이 기다리는 세상이 된 것이다. 어쩌면 암웨이가 인생 후반 30년의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될 것 같았다. 확신은 더욱 커져갔다. 이제 이택규 리더는 낮이면 연구원으로, 밤이면 암웨이 사업가로 두 삶을 살고 있다.

“밤에 사업을 하니 취미 생활을 하기 어려워졌어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미뤄둔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요. 가족 사업으로 암웨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서준이는 이제 겨우 일곱 살인데, 암웨이 덕에

해외여행을 4번이나 했어요. 아이를 보며 가족 사업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이 결실을 맺으며, 3세대 사업자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성장해간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더 깊게 생각하는 어른을 만나며 성장한다.

주재오·박경자 리더는 다이아몬드가 된 아들 내외가 대견하기만 하다. 딸 부부도 빨리 합류했으면 싶다. 하지만 이들은 성취의 이면에 막대한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엄청난 짐을 짊어진 느낌이었어요. 이 길을 25년간 걸어오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역경과 고통도 무수히 뛰어넘어야 했지요. 이 모든 것을 아이들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도 시스템이 정비되어 전보다 조금 나아지지 않았겠느냐며 박경자 리더는 엄마의 미소를 짓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불한 만큼 보상받는다. 주재오·박경자 리더는 취미 생활도 모두 포기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 희생의 대가로 이들은 25년의 뿌리를 자랑하는 암웨이 가문을 세웠다. 이제 2세대 사업가가 다시 25년의 기둥을 세울 것이다. 가치가 면면히 계승되는 한국 암웨이 최고의 가족, 이제 시작이다.





LEADERSHIP SEMINAR

암웨이에는 뭔가 특별한 여행이 있다.

2016 스페셜 리더십 세미나 두바이

지난 3월 6일부터 21일까지 한국암웨이 25주년을 기념해 스페셜 리더십 세미나가 열렸다. 모두 6차수로 운영된 이번 리더십 세미나는 총 1,784조의 리더들이 함께 했다. 'I'm Possible'이라는 슬로건처럼 한국암웨이 리더들이 만들어낸 '신나는 가능성'을 두바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보고 맛보고 즐겨라!

인천에서 두바이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10시간. 리더들은 저녁이 되어서야 두바이 알막툼 (DWC) 공항에 도착했다. 준비된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하자, 앞서 도착한 FC 리더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리더들을 환영한다. 간단한 환영과 함께 리더들은 늦은 저녁을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날 설레는 두바이로의 첫째 날 일정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본격적으로 두바이에서 일정을 시작하는 둘째 날.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이지만, 한국암웨이 리더들은 시차와 여독 따윈 없다는 듯 씩씩하기만 하다. 리더들은 호텔 중앙에 마련된 안내에 따라 사전에 신청한 프로그램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다.

이번 리더십 세미나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직접 선택하고 구성해 나만의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다'는 점이다. 두바이 여행 동안 한국암웨이에서 준비한 일정 중 리더 모두가 참여하는 공통 일정만 해도 로터스 크루즈에서의 웰컴 리셉션, 두바이 물에서 저녁 즐기기, 두바이 사막에서의 사파리 투어와 아라비안 나이트 등 모두 4개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 또 리더들이 각각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부르즈 할리파, 두바이 뮤지엄과 금시장 방문, 아부다비 투어, 스키 두바이, 두바이 파크와 아울렛 방문, 페라리 월드, 수크 메디나와 JBR 더 워크 등 일곱 가지 중 3개를 선택해서 즐길 수 있었다. 또 아라비안 나이트 행사가 있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저녁은 리더들이 직접 두바이 물에서 일정 금액과 쿠폰을 가지고 원하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지만, 즐기는 일은 리더들의 몫. 관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행을 하는 즐거움을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건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하는 한국암웨이 리더만의 특권이다. 그리고 그 특권은 리더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의 보상이다.





공 통 프 로 그 램 # 1
로터스 팜 크루즈

본격적인 리더십 세미나 일정이 시작된 둘째 날 오후, 리더들은 멋진 텍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버스에 올랐다. 바로 호화로운 크루즈에서 웰컴 리셉션이 열리기 때문이다. 두바이 마리나로 이동한 수백여명의 리더는 이날 세계 최초로 공개한 로터스 팜 크루즈에 올라 환영 파티를 즐겼다. 특히 두바이에서는 알코올 음료를 찾기 쉽지 않은데, 크루즈에서만큼은 칵테일과 맥주, 와인 등을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었다. 마리나를 출발해 페르시아 만을 향해하는 크루즈에서 신나는 음악이 흐르자 암웨이 리더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두 시간여 동안의 파티에서 리더들은 앞으로의 리더십 세미나 일정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서로 격려하며 자축했다.



공 통 프 로 그 램 # 2
사막 사파리 투어 & 아라비안 나이트

리더십 세미나 넷째 날, 오전에 선택 관광 일정을 마친 후 리더들은 한국암웨이 이벤트팀에서 나눠준 아랍 전통 의상으로 갈아입었다. 남성들은 칸두라, 여성들은 아바야. 호텔 앞에는 리더들을 태워 사막 사파리 투어로 떠나기 위해 사륜구동 SUV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있었다. 한 시간 넘게 달린 차량이 도착한 곳은 중동 여행의 꽃인 사막 한복판. 덜컹덜컹,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며 모래 먼지를 일으키는 차량을 타고 사막을 신나게 내달리는 쾌감에 모두 아찔해했다. 차량 안 여기저기에서는 “아악!”하는 신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사파리를 마친 후 리더들이 이동한 곳은 아라비안 나이트, 즉 아랍 전통 공연과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장소. 마치 마법 양탄자와 램프가 가득할 것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 아랍 전통 매뉴로 구성된 음식과 신나는 공연. 몇몇 리더는 더 이상 신날 수 없다는 듯 무대에 올라 춤을 추며 그날의 기분을 몸으로 표현해주었다.





선택 프로그램 # 1

부르즈 할리파

829.84m라는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부르즈 할리파. 부르즈는 ‘탑’이라는 아랍어, 할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인 할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이름에서 따왔다. 한국업체 리더들은 사전에 예약해둔 티켓을 받아 전망대에 올랐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4층 전망대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1분. 밖을 보면 “와~” 하고 탄성이 절로 나올 정도로 모든 세상이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인다. 리더들은 각자 신나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거나 두바이 전경을 감상했다.



선택 프로그램 # 2

두바이 뮤지엄 + 골드 수크

화려한 두바이의 과거를 확인하기 위해 떠난 두바이 뮤지엄. 1800년대 초 아부다비를 떠난 부족장 알막툼과 800여 명의 부족민이 정착한 두바이가 현재의 두바이로 발전하기까지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뮤지엄을 나와 금시장, 즉 골드 수크로 가기 위해 아랍식 전통 배인 아브라를 탔다. 천천히, 유유자적하게 움직이는 아브라에서 바라보는 시가지의 풍경은 멋졌다. 금시장에서는 약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졌다. 리더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온통 금으로 가득한 골목 곳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다.

선택 프로그램 # 3

아부다비 투어

두바이에서 1시간여를 달리면 아랍에미리트의 형님 나라인 아부다비에 도착한다. 아부다비 투어의 핵심은 바로 그랜드 모스크 투어. 모슬렘 사원이니만큼 드레스 코드가 철저하다. 입구에는 입장이 가능한 옷과 불가능한 옷이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복장이 까다로워 여성 리더들은 아랍식 전통 옷 아바야로 갈아입고 입장했다. 거대하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샹들리에와 온통 백색과 금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랜드 모스크는 아부다비 최고의 관광지인 동시에 최고의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 “찰칵찰칵.” 여기저기에서 리더들의 인생샷 만들어내는 셔터 소리가 들렸다.



선택 프로그램 # 4

페라리 월드

남자에게 페라리는 로망 그 자체다. 그래서 두바이 여행을 가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바로 페라리 월드다. 아부다비에 위치한 페라리 월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리더들을 맞는 것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조화를 이룬 페라리 로고다. 남자 리더들은 페라리 월드 안에 전시된 F12, F430 등 다양한 모델의 페라리를 한 대도 놓칠 수 없다는 듯 연신 카메라에 담는다. 페라리 월드에는 카트나 가상 서킷 체험 등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 백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롤러코스터. 몸에 걸친 모든 소품을 맡기고 고글을 써야 한다. 순식간에 250km 속도로 내달리며 소리 지를 틈도 없이 연신 회전하고 빠르게 달리던 롤러코스터가 멈춰 서자, 하얗게 질린 리더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동시에 짜릿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선택 프로그램 # 5

두바이 파크 앤 리조트 + 아울렛 빌리지

두바이 파크 앤 리조트는 테마파크, 워터파크와 리조트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다. 특히 인도 영화를 일컫는 발리우드 무비를 콘셉트로 조절한 발리우드 파크와 레고를 테마로 한 레고랜드,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를 테마로 한 모션게이트가 인기다. 어린 자녀가 있는 리더는 레고랜드에 아이들과 함께 왔으면 좋았을 거라며 다음 기회를 기약했다.





선택 프로그램 # 6
수크 마디나트 주메이라
 + 더워크 옛 JBR

두바이의 전통 시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크 마디나트 시장. 우리로 치면 인사동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이곳에는 아랍 전통의 느낌이 나는 소품이 많다. 리더들은 한국의 가족에게 선물할 기념품을 이곳에서 골랐는데, 특히 병에 담긴 샌드 아트와 아랍 풍 접시가 인기였다. 인공 수로에서의 아브라 탑승은 리더들이 좋아하는 순서로, 아브라를 타고 수로를 따라 가면 유명한 부르즈 알아랍 호텔이 한눈에 들어와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후 버스를 타고 간 곳은 더워크 옛 JBR,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숲이 해변을 따라 밀집해 있는 이곳은 두바이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도 꼽힌 바 있다. 리더들은 JBR을 산책하며 각자 원하는 메뉴를 골라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선택 프로그램 # 7
스키 두바이

한여름이면 기온이 40℃는 기본이고 50℃ 가까이 올라가는 사막의 나라 두바이에서 스키가 가능하다고? 상상이 현실로 이뤄지는 두바이에서는 모두 가능하다. 스키 두바이는 두바이 최대 쇼핑몰인 에미리트 몰에 설치된 실내 스키 리조트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면적으로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스키장 내 평균기온을 영하 1℃로 유지하고 있다. 별다른 준비가 없었지만 리더들은 스키복과 장비를 대여해 한여름, 아니 이른 봄에 스키를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 비즈니스 세미나와 새로운 시작

공식적인 여행 일정은 모두 끝났지만, 그 흥분과 여운은 채 가지지 않은 마지막 날 오전. 리더들은 조식을 마친 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세미나를 가졌다. 오는 6월부터 신임 대표이사에 취임할 김장환 부사장의 인사말과 한국암웨이 FC 의장을 맡고 있는 김일두 리더의 축하 인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2016년 한 해 동안 리더들이 거둔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상기시키며 마무리했다. 즐겁고 신나는 암웨이,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한국암웨이 리더들의 저력. 성공과 보상 그리고 아름다운 여행. 세상 누구도 아닌, 오직 암웨이 리더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행복한 감정들은 리더십 세미나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



AIRBNB

에어비앤비로 만나는 공유 경제의 성공

지구촌 곳곳의 빈방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낯선 곳,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는 상식을 뒤집고 가장 완벽한 사적 장소를 열린 공간으로 뒤바꾼 서비스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화두, 공유 경제의 파도를 몰고 왔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거대한 공유 매체다. 여행자가 숙박 업체의 이미지와 평판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여행을 설계하는 행위는 이미 보편적인 절차가 되었다. 자동차도 사무실도 개인의 재능도 공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공유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은 <타임>의 '세상을 바꿀 10대 아이디어'로 선정될 만큼 뜨거운 화두다. 이 '공유 경제'의 아이콘이 바로 '에어비앤비(Airbnb)', 2008년 시작한 전 세계 1위의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이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빈방과 투숙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빈방이 있는 집주인과 머물 곳을 원하는 투숙객을 연결하는, 말하자면 숙박업계의 '이베이' 같은 곳이다. 이곳의 숙소는 유목민의 전통 텐트를 비롯해 와이파이가 터지는 이글루, 오래된 성은 물론 개인 소유의 섬까지 다양하며 등록된 객실만 해도 191개국 3만 5,000여 도시에 200만 개에 달한다. 현재 회사가 소유한 숙박 시설 하나 없이 기업가치 300억 달러(약 34조 원) 이상의 회사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 창업자 세 사람인 브라이언 체스키, 조 게비아, 네이션 블레차르치크 모두 30대 나이에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다.

오늘 어디에 묵으실 건가요?

에어비앤비의 시작은 먼저 조 게비아의 경험에서 비롯했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을 갓 졸업한 그는 집 마당에서 버룩시장을 열었고, 빨간색 마즈다 미아타 자동차를 타고 온 남자에게 물건을 팔게 된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 게비아는 건넌 운명 같은 질문은 바로, "오늘 어디에서 묵으실 건가요?" 예상대로 딱히 잘 곳을 정하지 않은 남자는 그날 밤 게비아의 집에 머문다. 이런 뜻밖의 경험은 2년 뒤 샌프란시스코에서 고스란히 재현된다. '낯선 사람을 집에 재운다'는 조 게비아의 두 번째 경험은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와 함께였다. 당시 조는 졸업 후 회사를 그만둔 상황, 꿈을 찾아 무작정 실리콘밸리로 향하긴 했지만 돈도 직장도 없는 처지였다. 높은 월세까지 감당해야 했던 차에 대학 동창이자 단짝친구 브라이언 체스키가 룸메이트로 합류한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디자인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던 중 호텔 방이 부족해 숙소를 잡지 못하는 참가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곧 '아파트 월세나 충당해볼까?'라는 생각으로 공기를 주입해 사용하는 에어 베드와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는 공지를 인터넷에 올렸다. 하루 만에 디자이너 3명이 응답했다. 공항 픽업과 거실에서의 잠자리,



암웨이 젊은 리더에게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 전하는 교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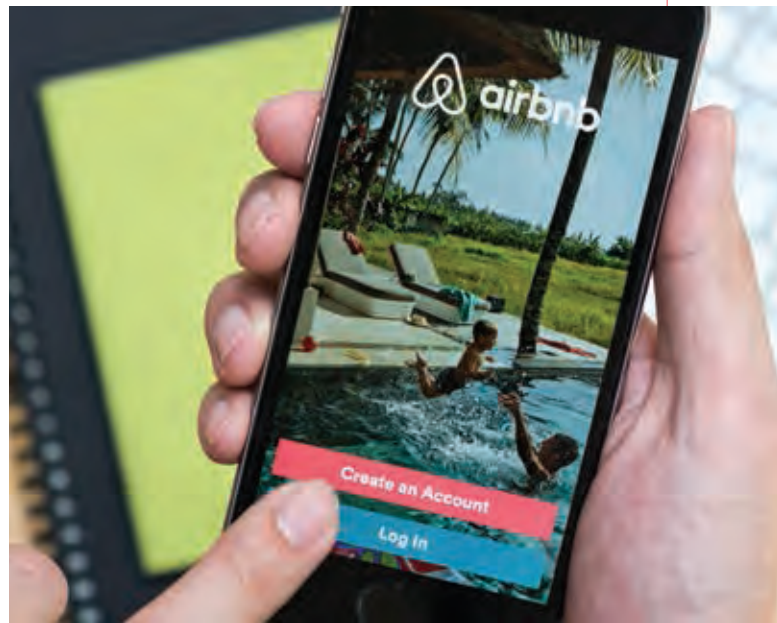
상호 보완적인 사람들을 만나 서로 존중하라
파트너십이 무너지면 회사가 잘릴 수 없다. 아이디어는 바꿀 수 있어도 파트너는 변경하기 어렵다. 시간이 들더라도 누구와 함께 창업할지 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의 관점과 기술에 관심을 갖고 보완해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햄과 치즈 오믈렛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일인당 하루 숙박료 80달러를 받아 5일간 한 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수익을 냈다.

아이디어를 디자인하다

경제적 수입은 물론 새로운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감까지 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을 사업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디자이너 출신만은 역부족이라고 느낀 이들은 하버드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일하던 조 게비아의 옛 룸메이트 네이션 블레차르치크도 불러들였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투자자는 개인적 공간을 공개해 낯선 이의 숙소로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를 불편해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 투자자 20명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10명에게 답신을 받은 뒤 이 중 5명과 카페에서 만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다. 한데 이들의 아르바이트가 뜻밖의 기회가 되었다. 미국 대선이 있던 2008년 대선 주자이던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의 이름과 스타일을 패러디한 소장용 시리얼 세트를 판매했는데, 이 상품이 예상외로 인기를 얻었고 생활고 해결은 물론 적지 않은 시드머니까지 벌어들인 것이다.

이후 세 사람은 보다 큰 도시에서 사업을 해보라는 투자자의 조언을 받고 근거지를 뉴욕으로 옮겼다. 조언은 적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맨해튼의 아파트를 빌려준 집주인이 큰 수익을 올리면서 에어비앤비 웹사이트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에어비앤비에게 인터넷을 매개로 자신만의 여행을 설계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세대는 잠재적 고객이었다. 또 인터넷 결제 대행 서비스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이미 구축된 기술이자 정보망이었다. 개인의 숙박 임대가 적법성 문제로 제기되었고, 숙박 공유 개념이 갖는 '낯선 이에 대한 두려움' 역시 해결책도 필요했다. 젊은 경영인은 그 문제를 인정하고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며 활로를 찾아나갔다. 성명, 주소, SNS 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제외한 객실 제공자 및 임대 거래 정보를 기관에 전달하고 신용카드 결제 대행, 사전 신분 조회 의무화, 객실 제공자에 대한 100만 달러 한도의 보험 가입 등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신뢰 구축을 위해 이용 후기를 활용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디자인을 고민해 제공했다.



암웨이 젊은 리더에게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 전하는 교훈 3

'슬픔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라 스타트업에는 라이프사이클이 있다. 스타트업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의 사이클이다. 서비스를 만들면서 점점 상승하다가 론칭과 동시에 인생의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아무도 우리 서비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슬픔의 골짜기' 기간이 온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라는 단어는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끈기가 투자자를 불러들였고 슬픔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



암웨이 젊은 리더에게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 전하는 교훈 2

핵심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을 고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지닌 핵심 가치를 보려고 한다. 에어비앤비는 갖추고 있던 문화와 가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성장시켜왔고 이 핵심 가치는 규모가 커진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핵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며 그러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메시지함과 이용 후기 시스템을 디자인해 적당한 정보와 일정 건수 이상의 후기가 공개되도록 만든 것이 그 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아이가 그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선물해줄 것을 산타클로스에게 원했지만, 나는 디자인이 형편없는 장난감을 선물해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직접 디자인하기 위해서였다." 에어비앤비의 대표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점

역시 '문제와 결혼할 것, 행동할 것, 실패의 경험을 즐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디자인, 실패의 반복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는 지금의 에어비앤비를 있게 한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다

2012년, 돌풍과 해일을 동반한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 시를 강타했다. 시민 수천 명이 이재민이 됐는데, 당시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셸이라는 여성이 피해 시민을 위해 자기 집 방 5개를





에어비엔비에 무료로 내놨다. 회사는 곧 웹사이트에 이재민을 위한 코너를 따로 만들었고 48시간도 안 돼 1,000명 이상이 무료로 방을 공유했다. 이 일에 관해 조계비아는 “일반 호텔 체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는 에어비엔비식 공유 경제의 바탕에는 늘 사람이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한다고도 해석한다. ‘이재민을 위한다’라는 온라인상의 말이 아니라 오프라인 현장에서 있었을 교감은 사람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누는 것, 함께하는 것은 에어비엔비가 발명한 새로운 가치

아래이 젊은 리더에게 에어비엔비 창업자들이 전하는 교훈 4

좋아하는 1,000명보다 사랑하는 100명을 얻으라 한 강연에서 “1,000명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좋아하는 것보다 100명의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확장성보다 집중도를 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뉴욕으로 갔다. 가서 40명 정도의 사용자를 만나 함께 맥주도 마시고,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면서 사용자와의 관계를 구축했다.

아니다. 손님을 정성스레 응대하는 행위는 언제나 존재했다. 타인을 낮선 사람, 곧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새로운 통념이 현대인을 집으로, 단절된 공간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말한다. 공포를 재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창의력이 안겨주는 선물이라고.





변함없는
원칙을
더하다

공기청정기들은 집중합니다. 미세먼지, 바이러스,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옛모스피어가 하나 더 집중하는 것은 원칙을 잃지 않는 것.

그래서 옛모스피어는 30년 째

안전함, 철저함, 책임감이라는 원칙을 지켜갑니다.

변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에도
 오직 건강한 공기를 위해, 원칙을 지켜온 옛모스피어.
 앞으로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공기로 남겠습니다.



좋은 공기, 그 이상
Beyond Air



recognition

CONGRATULATIONS



 Executive Diamond ____ 22

 Sapphire _____ 29


 Gold Producer _____ 38

 Diamond _____ 23

 Ruby _____ 31

 Silver Producer _____ 40

 Emerald _____ 28

 Platinum _____ 32



Executive Diamond

Diamond

김흠 동용

2017년 3월 1일부



때로는 올바른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흠 리더는 명동의 멀티숍에서 일했고, 동용 리더는 조선 설계 업무를 봤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될 것.

중국 교포인 저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캐나다 이민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사업을 접했을 때에는 아주 작은 세 가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전하지 않고 전념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 사업에 속도를 더해줄 자동차,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집이 세 가지였습니다. 10년을 목표로 이루려던 그 꿈은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쁜 삶에 치어 보지 못하던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는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입니다. 고된 일을 많이 하신 탓인지 45세 이후 부모님의 건강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과거 아버지께서 고지혈증 때문에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폐렴을 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써도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었는데, 암웨이와 인연을 맺은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처럼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무대를 꿈꾸는 글로벌 리더

무슨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과 명확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모범이 되어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는 스폰서님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에겐 두 분의 스폰서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스폰서님과 중국의 국제 스폰서님이지요. 저희는 서울에서 주로 사업을 하지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해외 무대에 나가 세계 최고의 사업자를 만납니다. 몇 년 전 곰팡이가 피는 지하 방에 살 때조차 해외 미팅에는 과감히 참석했습니다(여유가 없어 포기한 신희여행 대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웨이와 저희가 나아갈 사업의 크기를 가늠했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희가 암웨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행복입니다. 스폰서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천만 번의 노력보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할 때가 있다.”



김정민 이원교

2017년 3월 1일부

신은 용기 있는 자를 선택한다

먼저 이 시간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처음 암웨이 사업을 소개받았을 때는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직업은 안정적이었고,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날 즈음, 남편이 회사에서 더욱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갈 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직장 상사의 삶이 우리가 바라는 삶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회사 안의 멘토가 이원교 리더에게 고백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를 돌아보니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암웨이 사업이 어떤 일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암웨이는 제 선입견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스템에 점차 녹아들었고, 부족한 저희지만 있어야 할 자리를 꾸준히 지키니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모여서 팀워크를 이루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파트너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기쁩니다.

시스템이 거인을 만든다

물론 쉽게 이룬 성취는 아닙니다. 저희는 부부 후원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부부가 늘 같은 방향을 보고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대구로, 여수로, 광주로, 청주로, 천안으로, 용인으로, 김포로, 서울로 그리고 시스템이 있는 경주로 2년간 18만km를 운전해 다녔습니다. 열심히 땀수룩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머리모만 이해할 때는 사업이 정체되고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장기적 목표를 위해 단기 목표를 계속 세우고, 그 분명한 목표를 향해 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파트너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사업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자 더욱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도 저희의 진심을 알고 마음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겪으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리더로 거듭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제대로만 들어간다면 누구나 자신 안의 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김정민 리더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이원교 리더는 지금도 대기업 연구원으로 겸업 중이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인생 후반전의 준비가 되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Diamond

박은진 강진윤

2017년 3월 1일부



시스템 안에서 진짜 사업가의 마음으로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박은진 리더는 미술학원을 운영했고, 강진윤 리더는 지금도 직장 생활을 겸업 중이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진정한 자립을 이루어주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신뢰

강릉에서 아동 미술학원을 운영하다가 결혼 후 서울에서 신혼 생활을 하게 되어 일을 그만뒀습니다. 시댁이 여유로운 편인 데다 남편 역시 성실하게 회사에 나갔기에 경제적으로 궁핍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겐 친정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집에 다소 여유가 있어도 제가 돈을 벌지 않으니 용돈 얼마를 챙기기도 내심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려면 재정 자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찾아 나서니, 대학 동기 언니가 제게 암웨이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선입견 때문에 저는 여러 차례의 권유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편도 직장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개인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을 운영하던 아주버님이 동생인 남편에게 암웨이를 제안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야기를 통해 제 고정관념이 깨졌고, 당시 암웨이 사업을 진행하던 대학 동기 언니를 다시 만나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스폰서님을 쫓아 일산으로 이사할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파트너가 떠나고 힘든 시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걸 가르쳐준 암웨이

돌이켜보면 제게 시스템을 곁핥기로만 이해하고 시스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업을 진행하며, 파트너의 성장보다는 제 자신의 목표 성취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사업가 마인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시스템에 온전히 순복하며 내가 변화하고 스스로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 파트너를 품고 그들의 성장을 돕지 못한다면 암웨이 사업의 가치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진짜 의미를 깨달자 다른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이끄는 리더십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핀 성취까지 암웨이 사업을 진행하며 성공자들의 사고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크게 성장한 미래의 제 자신을 떠올리며 격려했습니다. 2019년의 라스베이거스 여행 비행기에 오른 저를 말이죠.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기자 김재기

2017년 3월 1일부



사람, 믿음 그리고 다이아몬드

해양대학 출신인 김재기 리더는 대형 상선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해운 관련 회사의 항만 장비 책임자로 전업했습니다. 항구에 정착한 선박에 컨테이너를 다루는 해상 크레인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주요 업무였습니다. 관리자니까 딱히 위험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1999년,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의 ‘콘’이라 부르는 잠금장치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겁니다. 3개월간 병원 생활을 했고, 퇴원 후에도 신경안정제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배 속에서 5개월 된 둘째가 자라던 제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김재기 리더가 퇴원하자 회사는 안전한 곳으로 보내준다면 산본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후 남편의 회사를 따라 인천으로, 평택으로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배 언니에게 암웨이의 종합영양제를 소개받았습니다. 암웨이 제품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암웨이 사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만 믿어선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

남편은 암웨이 제품이 신뢰했지만 사업에는 냉담했습니다. 사업을 소개하러 누군가 와도 남편은 부정적인 눈빛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변화해가는 제 모습을 보며 김재기 리더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살던 제가 세상을 좀 더 넓게 보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맘 흘리는 사업가로 변해갔습니다. 남편도 그 모습만큼은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에메랄드 핀업 이후 성장이 멈췄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충분히 열심히 했으니 이제 그만하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도 사람이 치유하더군요. 파트너들을 온전히 믿게 되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타인의 단점이 눈에 들어왔는데, 인젠가부터 잘하는 부분만 보게 됩니다. 그러자 파트너들이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상황은 없습니다. 상황이 돼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힘든 만큼 내일은 쉬워집니다. 결단을 내리고 사람을 믿으면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희가 그 증거입니다.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기자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재기 리더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삶의 희망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겸손해야 한다.



Diamond

최영선 제필고

2017년 3월 1일부



작은 시작, 큰 기쁨, 더 큰 성취를 향하여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최영선 리더는 주부였고,
개인 사업을 하던 제필고
리더는 지금도 겸업 중이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주는
마스터키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가지
비즈니스 핸드북대로 한다.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아이가 아토피로 힘들어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부산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암웨이를 알게 되었고, 2년간의 스폰서님 후원으로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네 살쯤 되자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제품 교육을 받으러 미팅장에 가본 저는 약간의 추가 수입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50만 원이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남편이 알고 난 후 부부 사업이 되면서 저희 암웨이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필고 리더는 잘못된 일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함께 사업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과 희망, 기회를 봤습니다. 남편은 운전면허도 없는 제게 차를 사주며 꿈을 이루자고 독려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제필고 리더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36번 미팅에 참석하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저희는 미팅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보상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행복이다

정확히 36번 만인지는 몰라도 그 즈음에 편입을 이룬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면허를 뺏지만 운전이 두려워 몇 달 동안 주차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보이고, 가기 어려운 곳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넘 시절 저희는 3년간 정체를 겪었습니다. 파트너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강력한 목표 설정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몰입하니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꿈꿨던 여행과 보상이 전부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도전을 통해 최고의 나를 만나는 즐거운 여행인 걸 배웠습니다. 또 가슴 뛰는 일에 온전히 몰입했을 때의 행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성장을 위해 애써주신 스폰서님과 형제 파트너 그리고 사랑하는 팀 리더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성공을 기도해주신 양가 부모님께도 항상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심에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황지영 김국인

2017년 3월 1일부



대를 잇는 나눔의 삶

지금은 시어머니가 된, 김국인 리더 어머니계선 암웨이 사업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부터 인세 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미팅에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곧장 사업에 나선 건 아닙니다. 결혼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후 1년간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계선 사업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일을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요리나 꽃꽂이 등 좋아하던 것을 열심히 배웠고, 그 안에서 사람들도 만났으며, 신나게 1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겁고 바쁘게 보내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5년, 10년, 20년 후에 내가 정말 바라는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멘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누구보다 남을 배려하고 늘 나누면서 살아가는 시어머니가 제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부터 3개월간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스스로 암웨이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암웨이는 기회고 나눔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기회가 되고, 시간을 그저 흘려 보내는 이에겐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015년 2월,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섰습니다. 감사하게도 나눔을 실천하시는 톱리더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눔까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매주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사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파트너를 마주하게 되면 없던 힘도 솟아납니다. 파트너들이 노력하는 이상으로 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솔선수범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진심과 진심은 통한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을 만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그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고 더 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겸손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UESTION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황지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국인 리더는 그때도 지금도 직장인이다.

암웨이를 하는 이유
나눔의 사업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March 2017년 3월 1일부



김영신·주홍준
전남 여수시



김진희
경기 파주시



남미영·천인구
울산시 북구



랑청호·김혜진
서울시 구로구



유주라·홍현철
경기 수원시



이난미·김태현
전남 순천시




허은숙·양광열
경기 용인시

2017년 3월 1일부

박기락·김호숙 경북 칠곡군
배지은·권중혁 인천시 연수구
이상원·강은희 대전시 중구

March
2017년 3월 1일부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강봉정·이연수
경북 경산시



강성숙·정창규
경남 진주시



곽영숙·김기현
대전시 유성구



김진영
서울시 서초구



김협·김용한
경기 안산시



박민수·손지선
경남 김해시



소현정·손석호
대전시 서구



손성미
경기 안양시



염미자
전남 순천시



유은진
울산시 중구



이경미·안병구
경기 용인시



이정자·김영욱
서울시 관악구



임희자·안준오
서울시 서초구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정금란 · 박현기
경기 남양주시



정서진 · 박철호
전남 여수시



지윤숙
경기 화성시



진순화 · 김경진
광주시 남구



차석호 · 홍혜순
부산시 남구



최인애
경기 남양주시



최혜옥 · 고미석
울산시 울주군

Gold Smith

내 생애 최대의 자량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1일부

김명자 · 노형기 서울시 광진구
김명희 · 서도식 경기 남양주시
김수연 · 강영철 제주 제주시
김은희 경기 오산시
김지영 대구시 동구
김혜영 경남 창원시
김희옥 · 김용일 대전시 동구
박다연 · 안상열 울산시 중구
안선희 광주시 북구

윤은혜 · 서성훈 경기 시흥시
윤정이 · 이형주 광주시 서구
이경미 경남 창원시
이종식 부산시 동구
이호림 · 허가시모리마사에 서울시 송파구
임영옥 · 민치영 서울시 송파구
장유진 · 이황의 서울시 성북구
정윤미 · 하상열 경북 구미시
정지윤 · 김수영 경남 창원시

February
2017년 2월 1일부



백현숙
경북 경주시



오수복 · 김성수
대구시 수성구



채선우 · 김정수
인천시 남동구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최미희 · 김수철
강원 정선군

March
2017년 3월 1일부



김옥연
대구시 달성군



신주원
광주시 남구



원유리
서울시 종로구



조미경 · 최병영
인천시 서구



최미영
인천시 계양구

2017년 1월 1일부
강환희 · 김후영 부산시 기장군
주정주 · 김홍국 경기 김포시
최해란 · 이승용 서울시 강서구

2017년 2월 1일부
김진숙 · 김중수 울산시 울주군
남동수 경북 안동시
이상미 · 여진수 충남 천안시
최인자 부산시 남구

2017년 3월 1일부
김성준 경기 용인시
김영진 · 김진옥 경기 고양시
김용미 · 조정범 서울시 중랑구
신미경 · 권혁준 경기 남양주시
신병룡 · 서미애 광주시 서구
안진희 · 박지웅 서울시 중구
엄미정 경북 칠곡군
윤미선 · 이억규 대전시 중구
윤여주 · 윤영근 서울시 동대문구

윤지희 경남 창원시
이경애 · 박종수 대구시 달서구
이형자 · 주대식 대구시 달서구
정성일 · 김보현 경남 김해시
한이리나 경기 부천시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January
2017년 1월 1일부



김나나
충남 계룡시



강애경
경기 수원시



구미순
대전시 유성구



김경미·정영빈
경기 화성시



김연주
대전시 유성구



김은예·김준만
경북 영천시



김은희
경기 구리시



김정순·안신영
경기 남양주시



박강식
부산시 부산진구



박미영
경기 군포시



박미정·염형열
전남 여수시



박용재
강원 원주시



박은지·조선국
대구시 북구



박필이·오원세
경남 창원시



배주은
경기 성남시



서수경
광주시 서구



송영란
부산시 부산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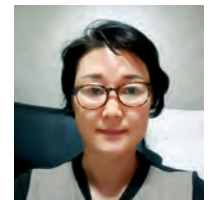
심재선·김태진
울산시 북구



이경희
울산시 북구



이선례·윤주열
경기 안양시



이은경
경북 경산시



이은주·전우하
울산시 울주군



이지희·손행민
부산시 사하구



정남숙·김원석
전남 목포시



정라영·박수기
충남 천안시



정미지·박승식
경북 구미시



정진숙
서울시 양천구



천유미·노병화
경기 화성시



최재호·정은실
전북 익산시



최주연
경기 고양시



최혜연
서울시 서초구

February
2017년 2월 1일부



권자은
서울시 서초구



김두영
울산시 북구



김현숙
경기 화성시



김현정·유대열
부산시 남구



김희숙
경북 칠곡군



나보라
광주시 서구



박선미
세종특별자치시



박수진
전남 목포시



박영미·이현수
인천시 연수구



박지은
경남 진주시



박현미
대구시 북구



박희순
부산시 사상구



배혜정·백필선
대구시 동구



백명희
울산시 북구



성민숙·이윤석
경남 양산시



손미나·박상호
서울시 송파구



신민희
경기 안양시



양수정
전남 순천시



양윤옥
경기 안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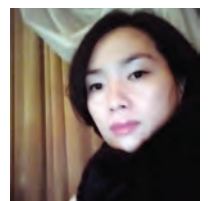
어은정·이근성
전남 나주시



유상민·강정량
광주시 광산구



윤선영
대전시 동구



이은희
서울시 마포구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이은경
경기 용인시



이지은·박연일
인천시 서구



이혜진·김진상
경기 군포시



장동숙·최용진
경기 광주시



장원아
경북 구미시



전명·이대현
경기 안산시



정경선·이동준
경기 용인시



정해정·이재현
대구시 달성군



조숙희
세종특별자치시



최미희·김수철
강원 정선군



최영선
경기 안양시



한효주
경기 시흥시

March
2017년 3월 1일부



강순화
광주시 광산구



고혜영·김택근
서울시 마포구



권영란·최신철
서울시 용산구



김기은
인천시 남동구



김도원
광주시 남구



김려향·전림호
경기 수원시



김미숙
강원 철원군



김병철·손유경
부산시 금정구



김성근
경기 용인시



김승린
전북 전주시



김심영
전남 광양시



김연희
울산시 울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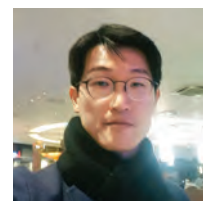
김은미·곽찬웅
경북 영천시



김인숙·이용갑
전남 순천시



김재욱
경기 용인시



김충현
경남 진주시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혜숙 · 신봉수
전남 광양시



남은유
경남 거제시



노현경 · 전금남
부산시 부산진구



노희гом
전북 전주시



도연지
부산시 연제구



류귀남
경남 창원시



류인영
부산시 해운대구



명윤경
충남 계룡시



박상태
경남 남해군



박은주 · 김태곤
경기 용인시



박정란 · 김성환
경남 김해시



박정주 · 김병관
경남 김해시



박지훈
인천시 부평구



박희순
광주시 서구



배미애 · 임강섭
경남 창원시



변승자
광주시 광산구



서광숙 · 이현철
경남 창원시



서일섭 · 김유연
광주시 동구



석지선 · 신대우
인천시 부평구



손현숙
대전시 유성구



송성현 · 강나리
제주 제주시



송현정 · 박병호
경북 구미시



안미경 · 강경현
경북 포항시



안윤순
경기 남양주시



염태현 · 박상준
충북 청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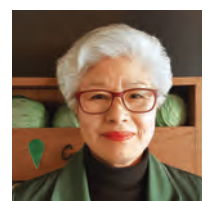
오정민 · 박성욱
울산시 동구



유미
광주시 광산구



유선희 · 이병도
세종특별자치시



유성선 · 이병두
경기 수원시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유순복
경기 부천시



유정·양승철
경남 고성군



유준욱
경남 진주시



윤명희
부산시 부산진구



윤영규·최순연
경북 경산시



이명희·김성두
경남 창원시



이미옥·정광섭
경남 진주시



이민주·석철호
부산시 수영구



이병희
경북 구미시



이승준·홍혜영
울산시 울주군



이영미·김행국
경남 김해시



이유진
대구시 동구



이은혜
대전시 서구



이인숙
전북 전주시



이주연·이봉우
경기 남양주시



장주현
경기 광명시



정민서·정재우
경북 경주시



정선경
인천시 연수구



정용길·김항울
서울시 관악구



조애란
경남 창원시



조혜나
경남 통영시



조혜진·이세민
서울시 마포구



주선영
경기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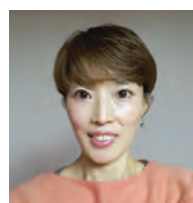
주옥희
대전시 서구



진복임
광주시 남구



차민경·신종규
경기 고양시



차은경·이종하
경기 평택시



최문정
경남 창원시



최미선
전남 화순군



최영숙
인천시 서구



최윤정
경남 창원시



최은주
경북 구미시



최주희
경남 창원시



한선미 · 김영식
충북 청주시



한재은 · 김지현
서울시 영등포구



허영실
대전시 유성구



홍경아
제주 제주시



December
2016년 12월 1일부



김환재
대구시 달서구

2017년 1월 1일부

- 강지현 · 한재웅 경남 밀양시
- 김혜진 경남 거제시
- 김건하 · 김동혁 대구시 북구
- 김도환 경기 파주시
- 김성미 광주시 광산구
- 김숙영 인천시 서구
- 김윤경 서울시 동작구
- 김정화 전북 전주시
- 김진숙 · 김종수 울산시 울주군
- 김철근 전남 광양시
- 김현미 · 김현우 경남 창원시
- 김홍매 부산시 강서구
- 남동수 경북 안동시
- 박은주 경기 수원시
- 박주현 경남 진주시
- 박춘현 경기 수원시
- 송정민 부산시 금정구
- 송현진 경기 용인시
- 신용길 충남 천안시
- 양윤실 서울시 은평구
- 염소옥 경기 의왕시
- 유하연 · 송호영 경기 군포시
- 윤신숙 경남 진주시
- 윤지현 광주시 남구
- 이강자 서울시 양천구
- 이선희 인천시 부평구
- 이영미 인천시 부평구
- 이영선 광주시 북구
- 이유미 · 전슬웅 대전시 유성구
- 이창익 · 고숙희 제주 제주시
- 이화윤 경기 용인시
- 임중서 충남 천안시
- 임혜량 서울시 구로구
- 장지영 · 송진규 서울시 광진구
- 전미량 · 이창석 서울시 서대문구
- 정미덕 전남 무안군

2017년 2월 1일부

- 조병규 · 김경애 강원 원주시
- 지영선 · 김현호 경기 광주시
- 최문영 광주시 광산구
- 최민아 경남 창원시
- 최수연 · 장홍하이 경기 안산시
- 최화람 서울시 영등포구
- 한이리나 경기 부천시
- 허현숙 대구시 동구
- 강금자 울산시 북구
- 강상우 경남 사천시
- 강용정 전남 목포시
- 강은미 대구시 중구
- 고유영 · 오두성 충남 천안시
- 김문정 대구시 달서구
- 김상숙 경북 경산시
- 김선영 · 윤여남 경기 파주시
- 김세현 경남 창원시
- 김순희 경기 부천시
- 김유나 경기 수원시
- 김정민 인천시 부천시
- 김정호 · 이은숙 경기 성남시
- 김정희 부산시 동래구
- 김지영 대구시 수성구
- 박경진 경기 광명시
- 박명선 경남 창원시
- 박소영 인천시 남동구
- 박영남 · 공일근 경남 김해시
- 박필준 경남 사천시
- 송경희 경기 파주시
- 신재실 인천시 서구
- 안대훈 경기 화성시
- 안선희 광주시 북구
- 엄지희 대전시 동구
- 오연경 울산시 북구
- 오은아 인천시 연수구

- 윤희복 대전시 중구
- 은양숙 · 남기환 충남 서산시
- 이금순 · 황인우 경남 창원시
- 이숙희 경기 광주시
- 이윤경 광주시 북구
- 이정호 울산시 북구
- 이주연 울산시 남구
- 이지숙 경남 고성군
- 이천매 경기 시흥시
- 이효영 광주시 북구
- 장봉순 울산시 남구
- 전세숙 · 김중현 경기 성남시
- 전승만 인천시 연수구
- 전현아 전남 목포시
- 정은희 경남 진주시
- 정재영 · 김상모 경남 창원시
- 조지익 경남 김해시
- 채동기 경기 화성시
- 최모영 · 배승환 서울시 관악구
- 하은진 · 이상현 경남 김해시
- 한경순 · 박건희 대구시 달성군
- 홍현규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3월 1일부

- 강동길 부산시 강서구
- 강수미 · 김광록 광주시 광산구
- 강연화 서울시 구로구
- 강오현 · 유영선 경기 용인시
- 경은미 인천시 남동구
- 고선아 광주시 남구
- 곽선근 · 김호순 경기 고양시
- 곽정미 경기 평택시
- 구정미 · 김일용 충북 청주시
- 구혜경 광주시 남구
- 김경민 인천시 연수구
- 김남희 · 황인용 경기 고양시
- 김명희 전남 순천시

- 김봉이 울산시 북구
- 김선희 · 박성일 서울시 강남구
- 김성 경기 파주시
- 김성근 경기 부천시
- 김세희 경남 창원시
- 김승배 · 곽재호 대구시 수성구
- 김순희 대구시 수성구
- 김연희 강원 원주시
- 김영미 광주시 서구
- 김영애 전남 순천시
- 김원태 서울시 서초구
- 김유진 인천시 서구
- 김은실 · 김상수 경기 수원시
- 김인영 서울시 서초구
- 김정하 서울시 양천구
- 김종명 부산시 동래구
- 김태은 부산시 해운대구
- 김희은 경남 창원시
- 김희정 전남 순천시
- 련애영 경기 수원시
- 모은미 · 이준원 서울시 서초구
- 문나영 경남 김해시
- 문진옥 경기 여주군
- 문향선 부산시 해운대구
- 박근선 부산시 금정구
- 박남순 대전시 유성구
- 박선희 경남 사천시
- 박성은 경북 경주시
- 박소정 경기 고양시
- 박연희 · 염만규 광주시 광산구
- 박연수 · 김국형 경기 용인시
- 박은선 서울시 영등포구
- 박정아 경기 부천시
- 박희린 · 윤보은 서울시 은평구
- 방화원 경기 수원시
- 배라영 · 이병훈 대구시 북구
- 손영 부산시 북구

- 송미경 · 여근호 전남 광양시
- 송상훈 충남 천안시
- 신정화 · 장기성 부산시 부산진구
- 오주연 서울시 서대문구
- 왕세령 광주시 북구
- 우경자 서울시 금천구
- 유별남 대전시 유성구
- 윤정희 · 조현일 경기 부천시
- 윤향미 경기 용인시
- 이선희 · 조태환 서울시 강서구
- 이수환 인천시 부평구
- 이연민 서울시 서초구
- 이연남 전남 여주시
- 이윤희 서울시 도봉구
- 이재람 경남 창원시
- 이정민 경남 창원시
- 이정순 부산시 동구
- 이진희 대구시 수성구
- 이현정 · 하상일 광주시 서구
- 이혜란 경기 김포시
- 임경섭 강원 정선군
- 장봉준 부산시 기장군
- 장현정 서울시 강남구
- 장혜정 서울시 서초구
- 전효진 · 전태진 대구시 남구
- 정미숙 울산시 남구
- 정미정 경기 용인시
- 정보람 경남 창원시
- 정서연 경남 진주시
- 정주영 광주시 남구
- 조영심 충북 청주시
- 최미정 서울시 강남구
- 최부전 서울시 금천구
- 최은선 대구시 수성구
- 최은지 강원 원주시
- 최은희 강원 원주시
- 최혜진 경기 부천시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January

XU XIAOHUA
가춘
강미영
고용란
공지현
곽태희
권미영
김귀향 · 우영환
김동혜
김명화
김명희 · 김태환
김미혜
김보경
김보연
김복심
김선숙
김성옥
김수현
김시진
김영주
김영희
김용주
김원성
김윤홍
김은호 · 김경현
김잔디
김지선
김지숙
김지애
김천숙
김하나
김해란
김현경
김현진

김혜숙
김효숙
김희경
박경숙
박군자
박미은 · 이양기
박성희
박성희 · 박명록
박양제 · 유미
박은하
박형순
서옥희
서재경 · 유기용
서향화
손선희
손영숙
손은정
송경숙
송연경
신복인
신정현 · 박흥진
신필수
심현옥
안영애
안옥현 · 조홍복
안은경
안주희
오현주 · 허승주
유명점
윤광훈
윤미애
윤병숙
윤수희
윤정희 · 류순봉
윤진아
윤현영
이경미 · 최인호
이경자
이광선
이길수
이남숙
이명란 · 김배식
이미라
이미연
이미현
이서영
이선미
이성형
이소희
이승우
이연정

이영숙
이옥희
이은정
이정희 · 황용운
이준삼
이지현
이학성
임은영
임찬목 · 남승희
장옥순
장지만
전혜정
정광명
정나경
정동명
정명석 · 오한아
정병환
정서안
정성이
정승현
정은지
정은하 · 김세욱
정은혜
정현진 · 김세운
조대형
주정희
주현수
진미애 · 박성영
차정순 · 장상조
천소영
최소영
최수진
최종미
최차숙
최혜경
한미희
홍미경 · 최병진
홍석만
홍재영 · 이상진
홍정주
홍혜영
황선아 · 김용준
황윤선 · 전병재

February

강명희
강찬호 · 김형주
구미숙
구화영
궁해균
권민조

권석순
권옥금
기은영
김경란
김광산
김명남
김명애
김미영 · 정윤식
김미정
김민숙
김선화
김성훈
김슬기
김신기
김애자 · 고범진
김영수
김영심
김영애 · 김명호
김영자
김옥순
김은비
김은숙
김은주
김은지
김이은
김재훈
김정수
김정숙 · 천여덕
김진홍
김찬정
김태암
김평정
김현아
김혜정
김희정
남기탁
도선영
라지영
문경화 · 이성호
문미영
민경숙
민선영 · 양현진
민수홍
박광열
박선미
박선영
박소정
박애자
박영화
박우리
박은정

박은정
박인혜
박일석 · 배경인
박채윤
배성필 · 박기훈
배은귀
배정열 · 박종준
백승숙 · 이성도
서승권
서은정
석기옥 · 장영진
손병성 · 이은정
손옥향
송은주
송주연
신민엽
신종대
양정자
여성순
여향봉
오선식 · 강수정
오연정
오용필
옥창훈
유영남
윤지선
이강민
이경희
이상숙
이소영 · 이상빈
이수영
이윤지
이재환 · 조선경
이정인
이정자 · 김훈
이정화
이준우
이지윤
이혜정
이희순 · 김경호
임미영 · 차민기
장미경
장수인
장은주 · 김정근
장혜윤
장희순
전경화
정미숙
정사미
정소영
정은지

정지희
정태남
정현경 · 김민석
정현아
조소연
조요셉 · 안희
조정순 · 남종현
조홍래 · 제갈선
주하영 · 이근춘
지정아
차정민 · 강귀웅
최보경
최상아
최서현
최성실
최성희
최수영 · 민병준
최영진 · 송정호
최정은
최지민
최후식
하영희
한동분
한승재 · 서혜원
황애진
황지희

March

강기주 · 김중화
강남희
강봉순
강인자
강창남 · 정순요
강한비
공소연
김경애
김기애
김기영
김도연
김동련
김동춘
김미경
김미란
김미영
김미희
김민정
김민희
김병식
김선영
김소영
김승연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김아람	박기숙	송상미	이영정	정우식
김양수	박미진	송은경	이영주	정하현 · 강원기
김영란 · 김광년	박미희	송화성	이원희	조동훈
김예화	박민정	신옥순 · 이병두	이위숙	조미연
김옥기	박사라	신현영	이윤숙 · 배준희	조미정
김윤경 · 박성준	박상규	양승연	이윤화 · 박경수	조원정 · 김철호
김은자	박상주 · 김정희	양주선	이은주	조장래
김은희	박선일 · 이경화	오봉철	이은희	조점순
김지윤	박성해	오정미 · 배성윤	이정명	조현정
김정희	박신실 · 김용휘	우미영	이지언	진상균
김주원	박재영	유경아	이지영	천경태
김진아 · 박이주	박정우	유순아	이현정	최빛나
김향옥 · 박영철	박종남	유지은	이화정	최연경
김현정	박종성	윤병덕	이화정	최영두 · 안경아
김형숙	박지현	이강우 · 고희	임동욱	최옥교
김혜경	박현정 · 이동주	이경민	임미라	최윤영
김혜리	배영철	이기원	임병필	최인광
나인수 · 박수경	백선숙	이령	임채연	최현순 · 이홍수
남궁임	서은경	이명구	장영준	한임선
남민아	성앵무 · 오충교	이미순	장현희	한주원 · 김은화
마선진 · 이새별	성영미	이민정	정경숙	허락영 · 이성희
명경은	손윤주	이복희	정경희	현수미
모상숙	손천국	이수정	정미정	홍기정
모현숙	송미숙	이신영 · 이주환	정미정	홍승희
민정화	송보현	이안나	정미향 · 박진우	홍지은
박귀향 · 김홍규	송상미	이영란	정민경	황남선

December

김은영 · 김동혁

남은유

백서원

이재란

임현지 · 서건식

October

김현민

Steve Jobs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January

강경동
강민정
강신영
강영란
강원선
강전욱
곽선희
금경애
길미현
김기영
김기옥 · 이도형
김남희
김다정
김대현
김덕우 · 최영희
김도연
김동민
김민정
김민정
김소명
김소형
김소희
김송희
김신영 · 심상근
김여정
김영란
김영옥
김영진
김옥기
김용섭
김유미
김유진
김은경
김은미

김은정
김인재
김정태
김정현
김종렬
김지영
김진옥
김진희
김추자
김향옥 · 박영철
김현성
김현아 · 김홍철
김현진 · 손윤희
김혜진
나영재
노갑현
노광희 · 화상호
노미리
문충석
박남수
박미희
박사라
박선일 · 이경화
박세웅
박수희
박영주
박유미
박윤정
박재균
박정수
박종남
박지은
박지현
박현정 · 이동주
박혜진
박홍규
박희정 · 신현중
배영철
배은미
백육례
성영무 · 오종교
손민서
손창환
손호걸
송보현
송선진
송수민
송여주
송영규
송정혜
송종례

송현주
신동호
신수정
신혜영
심규환
양선미
양지애
오기정
오명은
오영자
오유진
오점영
오현미
우장수
우준오
원윤정
원혜정
유경아
유미경
유영숙 · 오병훈
유현중
이기은
이강우
이령
이매화
이명구
이명희
이미영
이민자
이새롬
이승은
이승희
이영자
이원희
이월선
이윤희
이은주
이은희
이정제
이정희
이제홍
이지연
이채빈
이혜영
이혜진
이호진 · 이보영
이화향
이환주
이효숙
이효총
임미애

임선옥
임익순
임인숙
임혜경
임혜정
장대환 · 김수현
장성욱
장원석
장원철
장은하
전명숙
전미경 · 최진원
전정숙
전향신
정경숙
정근영
정금숙
정금용
정덕남
정수영
정연화
정영진
정지연
정창윤
조기화
조미정
조민주
조아라
조주석
주향선
자원희
진경미
채거건
최경희
최맹순
최미령
최옥교
최원석
최인광
최장심
추연광 · 권혜영
하현정
한권희
한상돈
한필녀
한현곤
허아름
홍기정
홍미숙
홍영규
황남선

황숙희
황해명

February

CUI WE
강경진
강계리
강동대
강동주
강염
강은정
강정이
강현정
곽미연
곽소영
곽지영
구보나
권경원
권동호
권미경
권수경
권은경
권점숙
권학대
김가현 · 김창호
김경아
김경운
김계현
김규영 · 윤지현
김남광
김동권
김명옥
김문주
김미석
김미옥
김미애
김미화
김민정
김병석
김병안 · 최영복
김보민
김복순
김부경
김사랑
김상미
김상희 · 이명희
김선미
김선숙
김세영
김수정
김순영

김순일
김승미 · 박환상
김신애
김여정
김연순 · 양동택
김영미
김영진
김영진
김영호
김용재
김용진
김유진
김윤달
김원식
김은숙 · 이준
김은혜
김은혜 · 김민수
김정환
김정희
김종현
김주용 · 조희조
김중부
김지선
김진희
김창순
김철중
김태익
김태훈
김태희
김해민 · 김찬식
김해영
김현자
김현주 · 우성현
김현진
김형준
김혜련
김혜숙
김혜순
김홍국
나경민
남경숙
남송열 · 하정임
남해연 · 정성협
노시환
노지영
류영지
문희철
민지연
박경심
박경아
박경은 · 양동휘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March

JIN YUNZHU

강경돌
강부찬
강정원
강혜란
고승자
고윤정
고은정 · 박인근

구영미
구제영
권소정
권유리
권해란
김가순
김광래
김근호
김기자
김나현
김낙주
김돌연
김명은
김명주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영
김미정
김미정
김미화 · 유보석

김민수
김민정
김민하
김복례
김부기
김분희 · 양장수
김선진
김성환
김세희
김소영
김수진
김신애
김안나
김애란
김애정

김연옥
김영민
김영화
김영화
김영희
김원옥
김은경
김은경
김은숙
김은영
김정미
김정현
김종석
김주미
김주영
김지수
김지숙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춘자
김태완 · 정향순
김포근
김필대
김한결
김현성
김현자 · 박해동
김현정
김현주
김혜경 · 장성철
김혜영 · 김상호
나성희
노영석
도승희 · 권준근

정현미
정현숙
정형훈
정혜인
정호경
정희리 · 강병수
조복희
조수정
조유나
조윤희
조은주
조정은
조창환
조현숙
조현철
조희경
지영미
진봉경
차민경
차영애
차현아 · 장집훈
채경병
채현지
천정미
천지애
최문선
최보람
최상희
최어지나
최영희
최윤영
최윤정
최은영
최정미
최정희
최혜영
하인숙 · 류승현
한규경
한수경
한여성 · 김태화
한영서
한태교 · 박선향
허강일
허경숙
허숙희
허효진
홍복임
홍윤정 · 최윤규
홍창식
홍하나
황샘이 · 최정용

이은경
이은경
이은경 · 김락영
이은숙
이은영
이은정
이은주 · 정성윤
이은하
이은하
이은희
이은희
이정순
이종숙
이종숙
이종철
이주현
이지미
이철봉
이춘경
이춘운
이하영
이향숙
이형헌
이혜원
이혜진
이화진
이회영
이효진
임수영
임숙희
임은희
임해은
장소연
장예음
장윤영
장주만
장지영
장진미
장형우
전미향
전선미
전영복
정경화
정미숙
정선화
정선희
정신욱
정애란
정은정 · 조명남
정지영
정한미

신우섭 · 문자선
신유정
신은영
신창희
신하자
신화영
심규오
심하영
안의영 · 최수길
안창숙 · 김남진
양윤정
양해자
오소희
오영남
오재희
유영원
유재우
유정화
윤주현 · 박래기
유주훈
유지영
유지혜
유진화
육근해
윤민아
윤옥자
윤혜진 · 박용태
이가희
이경민
이근애
이근철
이미숙
이미현
이병연
이석우
이선열
이소현
이수목
이숙경
이숙희
이순지
이승민
이승연
이신화
이아정
이애란
이연우
이영미
이영주
이오기
이유리

박규나
박기연
박묘영 · 정진국
박미애
박민석
박민희
박병철
박상준
박선미
박성미
박수민
박수진
박애자
박양숙
박영옥
박은경
박은지
박정은
박진홍
박철민
박철민
박현주
박형인
박혜경
박혜신
박혜현
배경임 · 조양희
배승훈
배옥희
배자선
배진하
백설희
백주연
변종영
서관홍
서미선
서순애
서순임
서승현
서지연
서향미
서호규 · 최영란
손명옥
손명진
손수경
송미영
송석종
송순현
송용한
신복희
신승윤

Emerald
Sapphire
Ruby
Platinum
Gold Producer



Silver Producer

동수란
류성혜
문미애
문선희
민중기
박경은 · 강영재
박경자
박나래
박동원
박두관
박미경
박미향
박비비안나
박성혜 · 이태규
박수철
박영미
박영주

박은주
박은지
박인숙
박정미
박해정
박현정
박현주
박혜원
박희숙
반정숙
배선옥
배수진
배수현
백혜진
변유정 · 김태완
변혜림
사민희 · 임옥빈
서미연
서수민
손병목
손현아
손혜미
손호경
신규선
신나라
신동배
신명화 · 김이식
신영희
신재은
신채성
안덕준
안병원
안병일
안성민 · 안소희

안유진
안정민
안정아
엄소영
여혜전
오경애
오지현
오탈림
유영심
유영희
윤수미 · 김진수
윤정현 · 윤정훈
윤중수
윤주일
이경숙
이경순
이경화
이남희
이다연
이덕분
이명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자
이미현
이민중
이상민
이서정
이선태
이선화
이성철
이소영
이숙희
이순옥 · 박봉규

이연영
이연서
이연실
이영자
이유란
이은경
이정애
이정혜
이정희
이주영
이중희
이태주 · 김민관
이혜윤
이효정 · 최형민
이후학
임석원
임연희
임의혁
임현
장은하
전민희
전상희
전현선
전혜민
정명순
정미경
정미영
정민경
정숙녀 · 형재석
정애리
정영인
정윤미
정은경
정은혜

정창열
정혜련
정희숙
조미옥 · 송인창
조선미
조성수 · 김현미
조정일
조주실
조한나
조한석
조희정
지금순 · 김재홍
지아름
진선희
진혜영
차인환
차주희
천성호
천은영
최경환
최광숙
최명숙
최미영
최선경
최성옥
최슬기
최연주
최영희
최옥주
최원경
최정열 · 김이경
최주현
최지영
최진희

최창기
최해진
최혜심 · 이희일
탁미나
하지연
한샛별
한희진
함영숙
허선재
허영혜
형미선
홍서진
홍성순
홍해경
황서윤
황애연
황영숙
황은영
황은진
황인수
황지영

December

김상범
김중숙
최선미
한홍연 · 정정봉

October

김지영

Che Guevara

무언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이 삶의 목표라는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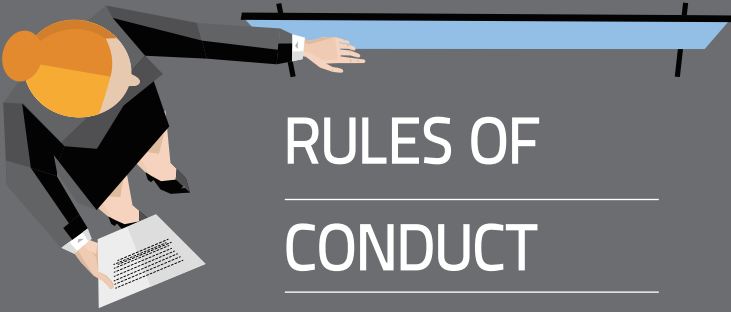
우리아이 평생 건강지킴이
NUTRIKIDS



튼튼한 씨앗이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어른이 됩니다”

어릴 때 영양관리가 평생건강의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으로
 뉴트리키즈는 근육과 뼈, 여러조직 등이 만들어지는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전해줍니다.
 12가지 비타민, 5가지 무기질, 그리고 부원료인 14가지 원료식물에서 농축한 식물영양소까지
 한참 자라날 때 평생건강의 든든한 기초를 다져줍니다.

뉴트리라이트 어린이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RULES OF CONDUCT

스폰서십 라인 규정 안내

암웨이 사업은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한 분의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를 형성하고,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데에는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형성된 스폰서십 라인(LOS)은 스폰서와 다운라인 상호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이자 암웨이 사업의 근간이며 또한 각 그룹의 라인체계는 사업 질서와 ABO 상호간의 신뢰 유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암웨이는 ABO분들의 소중한 노력의 결실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암웨이의 모든 ABO가 공정한 기반에서 올바르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 비로소 암웨이 네트워크가 굳건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며 장기적인 사업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암웨이와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이 더불어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규정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6개월 비활동 규칙

현재 ABO로 등록되어 있거나 예전에 ABO로 등록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는 탈퇴 또는 미갱신 등으로 ABO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간 전혀 암웨이 사업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시 ABO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ABO 자격 상실 후 6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암웨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 활동도 금지되며, 비활동 기간에 배우자, 부모, 자녀, 친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름으로 ABO로 등록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경우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부는 하나의 ABO 자격만을 가질 수 있으며, ABO 자격 상실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역시 비활동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2년 이적금지 규정

스폰서십 라인을 변경하는 ABO는 변경 이전 자신의 그룹에 속해 있던 ABO를 새로운 라인에서 후원자로 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ABO 자격 상실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2년 이적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첫 번째 상위 플래티늄 이상의 ABO와 첫 번째 하위 플래티늄 이상의 ABO, 그리고 그 사이에 후원관계가 형성되었던 모든 ABO가 해당됩니다. 만약 변경 이전 자신의 하위에 플래티늄 이상의 ABO가 없는 경우 다운라인 전체가 해당하며, 자신의 상위에 플래티늄 이상의 ABO가 없는 경우 스폰서십 라인 내의 모든 상위 ABO가 해당됩니다.

스폰서십 라인 규정 위반시 조치

- 스폰서십 라인 규정을 위반하여 ABO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규칙을 위반하여 라인을 이전한 ABO와 그의 다운라인 전체는 기존라인으로 복귀됩니다.
- 위반 기간 동안 발생한 실적은 세일즈 & 마케팅 플랜에 따른 보너스 계산시 기존 라인으로 이관하여 계산됩니다. 세일즈 & 마케팅 플랜에 따른 보너스 이외에 자격 인정, FAA 보너스 및 사업성장 특별보상 프로그램에 따른 장려금, 여행 프로그램 등을 계산함에 있어 위반 기간 동안의 실적은 어느 라인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ENERGY UP+

비타민으로 Energy Up!

XS ENERGY GUM
XS 에너지 껌





ABO의 성공이 만들어지는 공간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studioABO Mobile에 지금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studioabo.co.kr

Amway

